

예수 부활 대축일

기도서 278 면(A해)

제1독서: 사 도 10, 34a, 37-43

제2독서: 골 로 3, 1-4

복 음: 요 한 20, 1-9

#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84년 부활 메시지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뜻깊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경축하면서 예수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의 부활 대축일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부활은 200주년 경축의 해에 맞이하는 대축일일뿐 아니라 103위 시성식과 교황성하의 방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슴벅찬 감격과 더불어 맞이하는 부활 대축일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기쁜 부활축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제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200년이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2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 세계 교회사에도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후 한국교회는 계속되는 박해와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170만의 대가족을 거느리는 큰 교회로 성장했으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그 위치를 인정받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103위나 되는 많은 성인을 갖게 됨으로 전세계 교회가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작정 성취감이나 기쁨에 도취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의 이유에서입니다. 즉, 크게 성장하고 성인까지 모시게 된 한국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성장은 많이 하였지만 그 내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부활 대축일입니다. 예수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초석이며 부활의 영성은 그리스도신자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조 순교자들은 절두절미하게 부활의 신비를 믿고 그대로 생활한 분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리라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던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교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 신자로서 그리스도 부활의 신비를 삼고 그리스도의 증인 특히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이하고 신앙의 선조들의 시성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작오와 결심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피흘리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신앙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과 시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참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불행도 이루어야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회안에서 하느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피흘림없는 현대적 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에는 재물과 쾌락의 유혹이 과거에 비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많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현대의 치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축일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우리들도 같이 걸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훌륭한 선조들을 현양하는 길이며 천상에 계시는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가지 잊지말고 생각해야 할 것은 세계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한국교회의 위치와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작은 교회로써 외부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 왔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나름대로 더 어려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200년이나 자라온 한국교회가 이제는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어른스럽게 약한 교회를 돕고 전세계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사랑은 자기에게 필요없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필요한 것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제는 받기만 하던 교회에서 주는 교회, 참사랑의 교회로 탈바꿈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아직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3면에 계속>



### 아픔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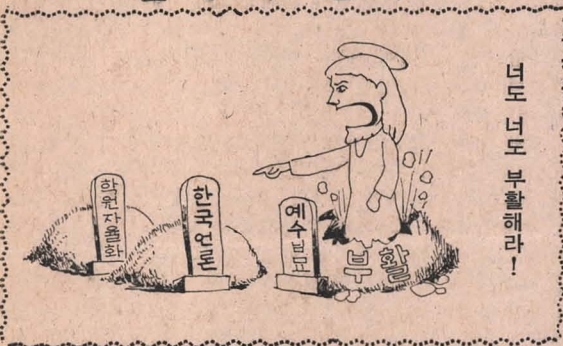
우리는 아픈 4월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젊음이 꽃잎지듯이 날려버린지 벌써 24년이 지났다. 그래서 해마다 4월이 되면 젊음이 몸살을 알아왔다. 그간 자세한 보도가 없어 명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틀리는 풍문은 결코 조용하지 않은 앓았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올해는 유독 친절한 보도로 대학가의 이야기들을 들려 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구석기시대의 석전(石戰)을 20세기의 서울에서, 그것도 지성의 문턱을 넘어선 대학생들이 벌이고 있다. 거기에 맞서는 경찰은 흡사 중세기 무사들의 모습이다.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거기다가 오징어류가 먹물을 쓰듯이 페퍼 포그가 젊은 눈물을 풀리게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젊은 지성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시민들의 짜증스런 불명마냥, 거칠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꼭 그 젊은 이들만 탓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크게 책임을 져야 할 어른들의 탓이 더 많은가!

한 마리의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 달걀은 그 껍질이 깨지는 아픔을 치루어야 한다.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양의 역사처럼 오랜 전통이 필요할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진 오늘에는 그 진도가 더 빨라야 한다. 각자의 처지에서 부끄러움없는 실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세로 이 고비를 넘긴다면 쉽게 풀릴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와 나의 자그마한 사리사욕은 버려야 한다. 별거뻔은 심정으로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없이 나서자.

성금요일에 4·19를 다시 맞으며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오늘, 갖가지 감회가 엇갈린다. 우리 모두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 솔직해지자. 그리고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자. 알렐루야!

### 숲 정 이 산책



너도 너도 부활해라!

### 부활의 참 뜻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하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절대자임을 일깨워주는 증거인 동시에 우리들이 그분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다. 부활은 믿는 이들의 신앙고백의 근거이며, 모든 신앙은 부활에서 참 뜻을 얻는다.

부활의 참 뜻은 죽음의 극복, 죄와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 그리고 인간의 부활을 보증하였다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들도 죽음과 악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새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성대하고 뜻있게 지낸 축제가 부활축제이다. 부활축일이 춘분(3월 21일) 다음의 만월이 지난 바로 다음주일로 정해진 것은 325년 니케아공의회에서 규정한 것인데,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지켜오고 있다.

### 부활의 상징 · 관습

#### 1. 달걀

부활절에 우리는 색깔한 달걀을 주고 받는다. 달걀은 죽은 것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생명이 깃들어 있어 언젠가는 여기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이므로 달걀은 생명의 상징이요, 중요한 상징이다. 따라서 부활의 새 생명을 잘 상징하고 있다.

#### 2. 고기 · 빵 · 백합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행운과 성공의 상징인 돼지고기(햄) · 예수님 몸의 상징으로 빵이나 과자 · 영혼이 깨끗하고 순결해질 수 있다는 의미의 토끼고기 · 승리의 기(어린양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림)의 양고기 등을 먹으며 즐겼고, 또한 청순함과 우아함으로 주님의 부활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백합을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부활축제 시기에 이런 특별하고 조그마한 형식을 한 행사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 안에서도 부활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고 영신적인 교육을 얻게하기 위한 것이다.

#### 3. 새옷 · 행렬

새옷을 입는 습관 역시 초대 교회로부터 지켜 왔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깊은 종교적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부활 행렬을 들 수 있다.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센타**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길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  
습니다.  
전주주역전오거리 ☎ 3-3032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데레사(금순)  
☎ ① 9206 · ② 5289

**우리피아노교실**  
서중학교 로타리  
☎ 4-5539  
박 주리아

□개원안내  
**등보한의원**  
원장 김경환(파비아노)  
☎ 52-4666  
**등부약국**  
약사 범순복(안나)  
☎ 3-7217  
이리시 등부시장 내

이땅에 빛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 200주년 9일 기도

기간: 4월 24일~5월 2일  
공통지향: 교황성하, 세계평화, 한국교회와 사회  
이북 형제와 고통받는 사람들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정신운동위원회에서는 200주년 기념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교황성하(방한과 시성식)를 앞두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의 뒷받침이 제일 중요하기에 한 마음으로 9일 기도를 바쳐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 200주년 9일 기도 팸플렛은 본당, 구역, 반모임, 가정, 개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2. 매일 실천적인 면(로사리오, 친절한 일 하기 등)을 실행하고
3. 시성식과 200주년의 기쁨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이북의 형제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4월 29일(일)에는 특별히 단식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4. 마지막 날에는 민족복음화를 위한 봉헌식을 갖어 주님의 자녀를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

지난 춘계 주교회의는 우리가 지내는 200주년 기념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황성하 방한을 준비하는 9일 기도 기간중 4월 29일(주일)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였다.

전주교구에서는 이날 모든 본당과 수녀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 1대와 특별강론을 하며, 이 날은 주일이지만 북한 동포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식사 한끼를 단식하도록 하였다.

## □ 제3기 베델성서 연구생 모집

교구 교육국(국장-문 규현 신부)에서는 베델성서 3기 연구생을 모집하고 있다. 1978년 범 석규 신부님의 도입으로 시작된 이 공부는 교구단위로는 본편과 숙편 각각 2기의 수료자를 낸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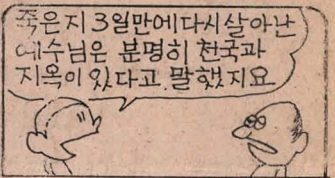
모집인원: 50명  
원서접수 마감: 1984년 5월 9일까지 (자필 소정의 원서, 사진 2매)  
면접일: 5월 23일(수) 오후 7시30분 장 소: 가톨릭 센터  
강 사: 범 석규 신부님(해성학원 상무이사)

<1면에서 계속>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앞으로 10일 후이면 한국을 방문해 주실 교황성하께 대하여 한 말씀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황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최고 사목자이십니다. 교황님의 방한은 한국교회 200주년을 경축하는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금상첨화 격으로 한국에서 103위 시성식을 거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에 대한 교황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시요, 우리의 아버지를 극진한 사랑과 효심으로 맞이하고 큰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하여 있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교황님의 방한이 순조롭고 교황님의 뜻하시는 바가 잘 이루어지시기를 구하는 뜻에서 이달 24일, 즉 모레부터 9일 기도를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신자 여러분께서는 교황님께 대한 사랑과 효성으로 이 9일 기도에 빠짐없이 참여하시어 우리를 찾아 오시는 교황님을 위하여 열심한 기도를 바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부활대축일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뜻깊은 날이 되고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 요심이(559) 김병오



## 교 사 초빙

1. 모집인원: 1명
  2. 자격: 미술이나 음악 자격증, 소지자로서 양과를 다갈이 지도할 수 있는 분
  3. 서류제출: 이력서, 자격증 사본, 고등학교·대학 성적 증명서 각 1통
  4. 제출마감: 4월 26일 오후5시 (본교 서무과)
- 이력서에는 연락처 명기할 것.  
1984. 4.

전주 해성 중학교  
학교법인 해성학원

금·은·보석·고급시계  
\*예물상당  
\*디자인 세공



금 파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한국무선열  
☎ (72)-3066  
유 승주·황 로사리아

## 고전 기타아 배우실 분

고전 기타아를 배우고 싶으나 길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 찾아 주십시오.

조흥은행 옆 3층  
전화 2-9096 지도 이병하(베드로)

## 진선미 꽃 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어  
☎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모(덕배)

(4) 순 정 이



1. 사제 평의회: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교구청 회의실
2. 성령새신 봉사회 은혜의 밤: 25일(수) 오후 7시 30분~9시(미사 있음)  
장소-효자동 파티마성당, 주제-내적 치유
3. 부녀자 1일 피정: 26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대상-부녀자, 회비-3천원, 지참물-신구약성서·미사도구
4. M.E 제 6차 주말강습: 27일~29일, 장소-광주 피정센터  
군산-오후 2시 월명동 출발, 전주·이리-오후 3시 센터 출발
5. 중고생 산간학교 준비 연수: 29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연합회 임원, 각 지구 및 본당 학생대표 1인, 참가비-1천원
6. 4월 성소 관심자 모임: 29일 오후 2시~4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대상-중·고·대학생 및 일반 성소 관심자(남자), 주관-교육국, 지참물-성서·공동체성가집·필기구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①

(중앙)

전화 ①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사도 회장 김인협

1. 복음사상 연구: 5월 4일까지 수강입니다
  2. 서울시성식: 티켓-사무실, 1매-6천원, 오늘 마감
  3. 주일학교 어린이 모집: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람
  4. 유아세례: 27일, 금요일 어머니미사
  5. 아치에스 행사: 금일
  6. 방지거 3회: 공식미사 후 강당에서
  7. 벽돌봉헌: 16,435장 봉헌
  8. 각 신심단체장: 5월 행사계획표 29일까지 제출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230,952원 교무금: 3,496,300원  
특별헌금: 국디오니시아 부활감사(1만원), 조마리아 감사헌금(3만원), 허씨로(1만원), 박귀녀(1만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수.사 ①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나춘섭  
사도 회장 이홍재

1. 축! 예수부활: 이번에 영세하신 형제자매님들께 축하드립니다
2. 정성과 희생으로 새성전 건립하자: 빠짐없이 신축기금을 신입합시다
3. 5개공소 합동미사: 오늘 오후 3시, 신원리 공소에서
4. 사제양성 후원저금통: 다음주일에 봉헌합니다  
꼭 지켜금통에 각 가정의 정성을 모읍시다
5. 본당 "기"도안 공모: 본당의 기를 제작합니다  
관심있는 분 다음주일까지 본당사무실에 접수 바람
6. 200주년 기념품 판매: 본당 구관장에서  
교황님 향한 기념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세요
7. 학생회 체육대회: 29일, 동국민학교에서  
참가비-500원, 백미 1봉지
8. "참부모가 되는 길" 연수회: 29일 9시30분~오후5시  
참석자 신청하세요

(덕진)

신부(3) 2182  
전화 수녀(72) 1222  
사무(72) 6259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정양현  
사도 회장 양상열

1. 부활: 마음의 선물과 함께 친교인사를 나누시다
  2. 축! 영세(47명): 새 형제들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3. 김경환(마지아) 학사님 독서직 수임: 23일
  4. M.E 사도직 피정: 참부모가 되는 길, 28일 오후 2~10시(부부에 한함·참가비-5천원)
  5. 금주 모임: 25일 저녁-전례분과·교육분과·만나회  
27일 저녁-봉사분과·제경분과 위원회
  6. 금주청소: 진복회·성심부녀회-28일 오후 3시
  7. 다음주 모임·행사: 진복회·주일학교 소풍-9시 본당  
집결
  8. 200주년 행사 참가 신청: 금주까지 접수 마감합니다  
(서울-6,500원·광주-5,000원)
- 지난주 봉헌금: 559,170원 교무금: 211,000원  
동산교회 봉헌금: 126,44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1. 사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2. 아치에스 행사: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29일)
3. 예비자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 임누시아 수녀님
4. 중고학생 지도: 매주일 학생미사 후, 이수녀님 지도
5. 대학생 지도: 이수녀님 지도
6.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2시, 교사회 지도-이수녀님
7. 5월 6일 주일미사 없음: 200주년 서울행사에 못가시는 교우들은 5일(토요일) 특전미사에 참여 바람
8. 금주전례: 해설-황만균, 독서-①김성원 ②양규철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천 건 ②김인석  
□ 지난주 봉헌금: 127,300원 교무금: 563,410원

(서학동)

신부 ①8307번  
수녀 ①2276번

주임 신부 김동준  
사도 회장 김낙균

1. 축! 부활: 부활의 기쁨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2. 교황성하 방한 9일 기도: 23일~5월 2일 저녁 7시30분, 전신자 참여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성광-송하영(30만원), 정원 나트리움 의동 설치-익명(23만원), 부활꽃매-조동호(3만원)  
·김영자(2만원)
  4. 축! 본당신부님 영명: 축하미사 29일 10시
  5. 영화상영: 김재진 신부님 일대기 28일 저녁 8시  
중·고생-5백원, 일반인-1천원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박경환 ②김배근
- 지난주 봉헌금: 393,986원 교무금: 356,000원

(순정이)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①9567

- ※ 새로 영세하신 교형자매님들 축하합니다
1. 예비자교리·애령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M.E. 주말강습: 27~29일, 신청 바람
  3. 다음주 주일학교: 28일 오후 2시, 미사-오후 3시
  4. 구역모임: 5월~6월중으로 일시 및 장소 신청 바람
  5. 축! 결혼: 4월 30일 오전 11시  
신랑-송상섭(분도), 신부-이정순(헬레나)  
※ 월요일 새벽미사는 없음
  6. 독서직 수임: 이명재(분도), 23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신학교
  7. 돈보스코회: 회의일자 변경(매주 일요일 오후 2시)
  8. 금주전례: 해설-이기호, 독서·기도-선종현·이정숙  
차주전례: 해설-이기호, 독서·기도-김남곤·김정분
- 지난주 봉헌금: 185,500원 교무금: 321,000원  
인성회 헌금: 117,326원 감사헌금: 조숙경 5만원  
신학생 후원: 동양아파트 10만원, 서베로니카 10만원

(전동)

신부 ①6208  
전화 수녀 ①3222  
수녀 ①8347

주임 신부 박치삼  
보좌 신부 김찬길  
사도 회장 김병오

- ※ 축! 예수부활 대축일
1.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 1시30분
  2. 주일 일반 교리반: 5월 13일부터 교리시작
  3. 교무금 신입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월납해 주세요
  4. 미사시간 변경: 아침미사 5시30분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김병오 ②정진훈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김희진 ②최종만
- 지난주 봉헌금: 795,770원 교무금: 452,000원  
특별헌금: 419,17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수녀 2-4804  
사무 2-0915

주임 신부 박종신  
사도 회장 황희상

1. 은혜의 밤: 25일 저녁 7시30분~9시
  2. 축하합니다: 영세자 74명
  3. 서울시성식 참가: 오늘까지 접수
  4. 사목방문: 27일 오후 효자2가
  5. 모임: 임시사도회-공식미사후, 푸리아-오후 2시
  6. 부활꽃: 송유자-1만원, 감사합니다
  7. 차주전례: 독서-①박수홍 ②서금자
- 지난주 봉헌금: 311,095원 교무금: 429,000원  
인성회 헌금: 100,000원